

버튜버 '서동' MZ 사로잡다

익산시, 역사문화 캐릭터 '서동' 활용... 백제 역사·시정 전반 홍보 조회 수 1만여회 육박

익산시가 지역의 역사문화 캐릭터인 '서동'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MZ세대를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존 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역사문화 캐릭터 '서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채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탄생한 버츰업 유튜브 '서동'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버츰업 유튜브는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방송인의 행동이나 표정을



영상에 대한 표현하는 가상 캐릭터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서동부터 무왕의 일대기까지 다양한 역사 스토리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지역에 숨겨져 있는 설화와 전설 유적·관광지 뿐 아니라 지역 행사와 축제 등 시

정 전반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덕분에 각 영상마다 평균 조회 수가 1만여회에 육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총 5편의 동영상은 제작되었으며 최근 게재된 영상을 제외하면 평균 조회 수는 9천925회에 이른다. 제작된 영상은 △시정제 최초가 될 뻔한(?) 버츰업 등장 및 소개 △스즈메의 문단속을 패러디한 익산시 소개 △공공승마장 홍보 △전북익산 맘을 이용한 아메미스터스 대회 홍보 △노래로 백제 짬 먹는 법 등이다.

서동 유튜브 채널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시청자와 함께 생방송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재산피해 제로화 노력해달라”

익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체제' 돌입

익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5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태풍·폭염에 대비해 시민안전과, 건설과 등 14개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괄부서인 시민안전과 협업 부서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응·대비·복구 추진계획과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염대책 관련 선제적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 하천, 하수도, 응벽, 급경사지, 지하차도, 공사현장 배수펌프장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하수도 준설작업 등 피해를 줄이고자 선제적 안전조치를 마쳤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과 함께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 중이다.

정현을 시장은 “호우·태풍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배수로 및 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고장 등 사전점검을 강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산사태·하천 범람 등 위험징후 발견 시 사전 대피 및 대피 명령을 신속히 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재난 대응에는 선제적이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기간동안 빈틈없는 준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시장 “민생경제 살릴 신속 집행 총력”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60.5% 달성 · 지역업체 우선 계약 주문

정현을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이다”며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인 60.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 계약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 생산물품과 업체를 분기별로 조사해 전 부서에 제공하고 발주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물품 우선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정 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안전의식을 갖고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발생 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는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 시장은 “올해는 엘니노 현상으로 다른 해보다 자연재난이 더욱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부서는 자연재난을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 단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기재부 단계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서 잼버리 성공 · 코로나19 위안 프리미엄 축제 잇따라 개최

6월 군산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대형 행사와 축제 등이 이어지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8일 KBS가요무대가 촬영되며, 13일 KBS 전국노래자랑(군산편)이 10년만에 방영된다. 또,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2회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새만금잼버리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KBS가요무대는 8일 오후 7시 30분 월

명중합동운동장에서 김동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다. 가요무대는 지난 1985년부터 방송 중인 KBS의 대표적인 성인가요 프로그램으로 김연자, 박군, 윤수현, 김진디, 양지은, 김성환, 현숙 등 호화로운 캐스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오후 3시에는 월명중합동운동장에서 김신영의 사회로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 초대가수로는 진성, 김용임, 김주경, 신승태, 트윈걸스가 출연하며 예시는 11일 오후 1시부터 군산

시청에서 치러지며 300팀이 넘는 예선 참가 접수로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제2회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일원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동안 열린다. 올해도 블루스 음악과 접목해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밴드 16개 팀의 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호원대 실용음악학과, 직장동호인 밴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군산시는 6일 오전 10시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현충일 추념식 내빈 규모와 행사 의례를 확대했으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추념식은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조종 발사,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학생 대표의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 주신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 복지를 강화하고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등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 한센병 관리·지원 발의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사업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한센인들을 위해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지방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한두 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 여건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한센인들에 대한 안정적,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장애인 보호 조례안 통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익산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시설 내 거주 장애인 학대 및 성추행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찰서가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12곳, 공동생활가정시설 2곳과 단기거주시설 1곳이 있어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